

# 젊음·팀워크 강점...올해 전국체전 단체전 정상 탈환 목표

## 장애인체육 훈련 현장을 찾아서-광주 휠체어 펜싱팀

평균 연령 30세 '젊은팀'...주 5일 매일 6시간씩 기술·실전 훈련  
수시로 소통하며 팀워크 다져...최건우·조성우 등 태극마크 도전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장의 프레임에 고정된 휠체어에 앉아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펜싱 경기를 펼치는 것을 휠체어 펜싱이라 한다. 지난 2009년 창단된 광주시 휠체어 펜싱팀은 3년 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사브르 단체전 우승의 영예를 되찾기 위해 올해 초부터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했다.

남자 대표팀은 최건우(23·한국전력KPS), 최정우(39·신성자동차), 조성환(24·보나비), 황수빈(35·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윤용훈(32·직장인) 등 5명이며, 여자 대표팀은 김민정(28·위대한 상상), 이해원(38·직장인)으로 구성됐다. 팀 지도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전문체육지도자인 김민권(31) 코치가 맡고 있다.

광주 휠체어 펜싱팀의 특징은 평균 연령 30세의 젊은 팀으로 남다른 순발력과 체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공수를 주고받는 경기인 만큼 순발력은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수 간 나이 차도 크지 않아 친구처럼 돈독한 우애로 탄탄한 팀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이다. 또한 선수들 대부분 기업과 연계되어 있어 안정적인 훈련에만 열중할 수 있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대표팀 훈련은 광주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매주 '5일 훈련·2일 휴식' 주기로 하루 6시간씩 진행되고 있다. 하루 중 오전(10시~11시30분)은 기

술 훈련, 오후(1시30~5시30분)엔 기술 및 실전 훈련이 이뤄진다. 하루 훈련 중 비중을 두는 것은 바로 기본기 훈련이다.

김 코치는 "칼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방어 후 공격과 공격 후 방어 자세를 반복하는 훈련이 기술과 체력을 동시에 연마할 수 있는 훈련이다"면서 "우리 팀과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는 운동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한다.

휠체어 펜싱 선수는 장애 등급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뉘며,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단체전에 B 등급 이하의 선수가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팀은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평일 오후 훈련 중 A·B 등급 선수는 1시30분부터, C 등급 선수는 3시30분부터 각각 2시간씩 나눠 훈련한다.

올해 대표팀의 목표는 전국체전 단체전 우승이다. 2021년 41회 전국체전 사브르 단체전 우승 이후 2022년 대회 은메달, 2023년 대회 동메달로 한 단계씩 내려 앉은 성적을 반등시켜 정상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대표팀은 내달 나주에서 열리는 제20회 춘계 전국 휠체어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올해의 전력을 처음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도 겸하고 있어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김 코치는 남자 대표팀 선수 중 최건우와 조성환을 국내 정상급 선수로 꼽고 있다. 그는 두 선수가



올시즌 선전을 다짐하는 광주 휠체어 펜싱팀.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건우는 지난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서 항주장애인아시아게임 남자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이 여세를 몰아 올해도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환은 지난해 전국체전 남자 개인전 사브르와 플뢰레에서 각각 동메달을 차지해 올해 첫 태극마크를 꿈꾸고 있다. 황수빈도 지난해 전국체전 플뢰레와 에페에서 기록한 3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이다.

조성환은 "역대 가장 젊은 팀으로 구성된 전국대회 정상을 충분히 넘볼 수 있으며, 사기도 충천해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최건우도 "팀 동료들의 경기에도 모두 참석해 응원하는 등 어느 팀보다 팀워크가 강하다는 게 우리 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수빈은 "정기적으로 단합하는 자리도 마련해 선수들 간 소통에 막힘이 없는 원팀으로 올해는 반드시 일을 낼 것이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다.

안타깝게도 여자팀은 2명으로 개인전 출전은 가능하지만 단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코치는 "여자팀 선수도 보강하고, 우수 선수도 발굴해 광주 휠체어 펜싱팀이 명실상부한 전국 최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체전을 포함해 7개의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시 휠체어 펜싱팀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글·사진=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 전남도청 서창완, 근대5종 월드컵 혼성계주 '동'

### 한국체대 성승민과 합작

근대5종 국가대표 서창완(전남도청)이 시즌 첫 월드컵 대회인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에서 성승민(한국체대)과 혼성 계주 동메달을 합작했다.

서창완과 성승민은 1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4 UIPM 월드컵 1차 대회 혼성계주 경기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의 점수를 합해 총 1322점을 획득하며 3위에 올랐다.

이번 동메달은 9일 김선우(경기도청)가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따낸 두 번째 메달이다.

서창완과 성승민은 마지막 레이저 런에서 느린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동메달로 마무리했다.

리했다.

혼성 계주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4위, 승마에선 7위를 기록한 이들은 수영에서 9개 팀 중 최고 기록인 2분 01초 05로 완주했다. 레이저 런에서는 앞에서 얻은 종목의 점수에 따라 1점당 1초씩의 시차를 두고 출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7번째로 출발했지만, 가장 빠른 12분 30초 7을 기록하며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우승은 1350점을 획득한 멕시코의 마리야나 아르세오·두이오 카리요가 차지했다. 2위에는 1337점을 받은 카자흐스탄의 류드밀라 야코브레바·데미란 압드라이모프가 자리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따낸 한국 근대5종 대표팀은 오는 4월 10일 화성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시니어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창완(오른쪽)과 성승민이 1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 월드컵 대회에서 혼성계주 동메달을 획득한 뒤 시상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전남주 광주시체육회장(앞줄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11일 열린 순회 간담회에서 지방 체육 현안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안병훈, PGA 아널드 파머 공동 8위...세계랭킹 41위로 상승

### 김주형 18위·임성재 36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두 달 만에 톱 10에 오른 안병훈이 세계랭킹 41위로 올랐다.

11일 발표한 남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안병훈은 지난주 43위에서 2계단 뛰었다.

이날 끝난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공동 8위를 차지하며 3라운드보다 순위를 크게 끌어올린 덕분이다.

올해 세계랭킹 60위로 시작했던 안병훈은 지난 1월 더 센트리 4위에 이어 소니오픈 준우승으로 세계랭킹을 39위까지 끌어 올렸지만 이후 두 달 동안 톱10 입성이 없어 40위권을 맴돌았다.

김주형은 16위에서 18위, 임성재는 35위에서 36위로 내려앉았다. 김시우는 53위를 지켰다.

이번 주에 가장 두드러진 랭킹 상승 선수는 11일 PGA 투어 푸에르토리코 오픈에서 우승한 브라이스 가넷(미국)이다.

가넷은 535위에서 196위로 경종 뛰었다.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1위를 굳게 지켰다.

2위 로리 매켈로이(북아일랜드)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온 람(스페인),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가 3, 4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 시·도 체육회 "지역 체육발전 위해 힘 모은다"

### 대한체육회 주관 '순회 간담회'

시·도 체육회가 11일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지방체육회의 핵심 현안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등을 공유 받고 ▲상장기업의 학교운동부 지원 의무화 ▲학교체육시설 개방확대 필요성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업무조정 등의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지역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과 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이날 오후 3시 목포국체축구센터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체류비 지원 확대 ▲체육청년 사회첫걸음 지원사업 중단 대책 ▲공공스포츠클럽 회원단체 가입 의무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운영관련 등 지방체육회의 여건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묘
- 2관 둘: 파트2
- 3관 패스트 라이브즈, 벙커 게임
- 4관 파묘, 생츠킨 2: 퀴카가 너무해
- 5관 윙카
- 6관 파묘, 예수는 역사다
- 9관 둘: 파트2, 가벼운 것을, [위드키즈] 브레드야발소: 셸럽 인 베이커리타운
- 7관 싸네커를 파묘
- 8관 싸네커를 파묘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윤유재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